

#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의 사업 역량 강화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9

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우리 원자력계 역시 원자력 발전이 21세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갈 중추적인 국가 에너지 자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1세기의 필요로운 국가 건설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새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사업을 둘러싼 홍보 환경은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비정부 기구(NGO)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환경 단체의 원전 반대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 문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 과제로서 이에 대한 국민 홍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의 원전 폐쇄 정책은 우리 나라의 원자력 개발 정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에 최근의 국가 경제 위기로 연료의 해외 의존도가 낮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산업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변화협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이용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등 원자력 홍보를 위한 좋은 기회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입지 확보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활동의 질적 개선 및 확대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의 다양화 및 체계화로 장기적인 원자력 이해 증진 기반을 조성하는 등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 원자력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홍보 강화

지난해 8월에 확정 발표된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 활동의 강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원전 지역의 여론을 순화시키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지역 홍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

이다.

이를 위해 원전 신규 입지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TV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방사성 폐기물 게임용 CD를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월성 및 울진 원자력문화진흥회를 결성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고리 지역 원자력문화진흥회를 결성하여 우리 나라 4개 원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친원 단체 결성을 마무리하고, 이들 원자력문화진흥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여론을 순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을 더욱 활성화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원자력의 친화적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지난해 많은 호응을 얻었던 지역 주민 노래 자랑 대회 등 지역 문화 행사는 올해에도 계속 확대하여 개최하고, 지역 문화제, 지역 체육 행사 지원 등 지역 밀착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원자력의 친화적 이미지를 높여 나가며,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협력 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대국민 홍보 활동의 질적 개선 및 확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은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도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 91.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원자력을 막연히 위험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아 원자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올해에도 다양한 홍보 사업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이해 증진을 높여 나갈 것이다.

먼저 사회 주요 인사 등 여론 주도층에 대한 원자력 시설 시찰 및 강습회를 대폭 확대하여, 사회 저변의 원자력 이해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언론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 대책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책 수립 관계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원자력 사업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교육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자력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등 이벤트성 문화 행사를 적시에 개

최하여 원자력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국립과학관 상설 원자력관 및 이동 홍보용 전시물 운영, 휴대용 전시 모형물 제작 활용 등 현장 중심의 상시 전시 홍보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차세대 대상 교육의 체계화 및 다양화

지난해 결성된 「원자력을 이해하는 차세대모임」을 확대 정비하고, 「원자력을 이해하는 교사모임」을 새롭게 결성하여 교육 현장에서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근로 청소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교육과 대학생 및 우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학습회, 그리고 청소년 원자력 캠프, 중등 교사 워크숍 등 교육 문화 행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 장학생 선발과 대학생 원자력 논문 공모, 중·고생 작문 공모 등 장학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원자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 교육용 영상물, 월차트, 홍보 만화책 등 각종 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다.

이밖에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원자력 교육이 이루어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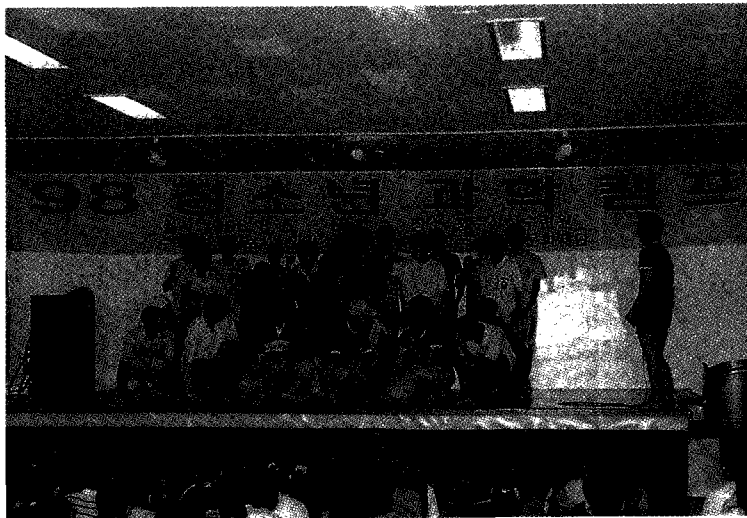
있도록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 대한 연구 및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과서 정책 수립인사, 각론 연구 개발자, 교과서 집필진 등 교육 관련 전문 인사들에 대한 이해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 종합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 강화**

정보화 시대의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부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특히 「원자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원자력을 이해하는 차세대모임」,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지역원자력문화진흥회」 등 친원 단체의 정보화 활동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입지 지역 주민 및 원자력 사업 현안에 대한 간이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원자력 PA 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는 한편, 국민 이해 제고 방안을 위한 용역과 환경 단체의 반핵 논리 대응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원자력 종합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을 높여 나갈 것이다.

특히 언론 및 환경 단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언론 보도 기사 및 환경 단체 간행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



청소년 과학 캠프. 원자력 이해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홍보 기법의 끊임없는 개발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 체제로서 사회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고 올바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상시 대응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홍보 전문기관으로서의 사업 역량 강화**

원자력 이해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홍보 기법의 끊임없는 개발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 체제로서 사회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홍보 전문기관으로서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원자력 유관 기관 홍보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원자력홍보(실무)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원자력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홍보 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원자력 홍보 실무자들간의 정보 교환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원

자력 홍보 세미나와 원자력 홍보 전문 요원 양성을 위한 연수 강좌를 올해에도 계속 시행하는 등 원자력 홍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자력 사업을 둘러싼 홍보 여건 또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원자력 문화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재단의 비전을 바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 기반 확충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